중앙승가대 불교중앙도서관 개관

중앙승가대의 숙원인 불교중앙도서관이 개관했다. 중앙승가대(총장 태원스님)는 지난 6일 불교중앙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선지식 양성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개관한 불교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여㎡ 규모이며, 252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비치된 도서를 보면, 장서가 8만 여권, 각종 정기간행물에 500여 종에 달한다. 세계의 대장경도 구비돼 있다. 달라이라마가 최근 기증한 티베트대장경을 비롯해 미얀마, 일본의 장경 등이 있다.

주요시설로, 1층에는 세계대장경실과 보존서고 외에도 'Sunya(空)' 갤러리,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다향실 등이 있다. 2층에는 불교학자료실, 자유열람실, 멀티미디어실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강의동으로 바로 연결된다. 또 3층은 일반자료실과 세미나실, 참선실, 고문서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4층은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불교중앙도서관답게 디자인도 독특하다. 현대적 건물양식에 전통사찰양식이 가미돼, 전통사찰의 창호패턴을 도서관 커튼월에 도입하고, 옥상정원 바닥에는 해인삼매를 형상화한다. 또 1층에는 서용 동덕여대 교수의 작품 '화엄변상도'가 전시돼 있으며, 세계대장경실 입구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하는 모습에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2명의 보살이 함께 새겨져 있다.

세계의 대장경 40여종 전시
한국불교 이끌 선지식 양성
김포시 문화공간으로 활용

총장 태원스님은 "불교중앙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부대중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도서관은 한국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선지식 양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김포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중앙승가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서관 개관식에는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원정스님, 유영록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학교법인 중앙승가대 이사장)은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중앙승가대학이 선지식을 양성하는 근본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태원스님은 삼성암 주지 세민스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공사를 주관한 이병천 도영건설 대표이사와 전성진 HNT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포=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중앙승가대는 지난 6일 불교중앙도서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신재호 기자

템플스테이 영문 표준화 착수

불교문화사업단, 공청회 개최
"표준화보다 정착이 더욱 중요"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를 찾은 외국인은 10만명. 지난해만 2만명이 다녀가 템플스테이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관광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 10년을 맞아 외국인 참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템플스테이 영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은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 이유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번역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표준화 작업 사업을 진행한 문화사업단은 그 성과를 내놓고 검증을 받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는 동국대 번역학연구소장 조의연 교수가 맡았다. 조 소장은 수행과 의식, 건축, 문화를 범주로 대표적인 불교용어 300여 개를 뽑아 표준안을 소개했다. 우선 이전에 나온 영문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고 외국인이 아닌 템플스테이 운영자 중심으로 표기돼 있음을 지적하며 "소통 중심의 표기가 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잘못된 사례를 들면, '공양'의 경우, 식사를 의미하는 meal time과 부처님께 공양물을 바치는 offering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108배의 '배(拜)'는 대부분 'bow'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서서하는 인사 정도로 오체투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어 영문용어 표준화 유형으로 △산스크리트 및 팔리어 영역(관세음보살, 법랍, 법문 등) △한국어 음역+의미 영역(합장, 화두, 목탁 등) △일반 영어 표기(염주, 목어, 삼매 등)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조 소장은 "표준화가 되더라도 사찰 등 템플스테이 시행기관에서 상용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므로 반드시 재현된다는 전제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발제에 이은 토론의 자리에서 토론자들도 표준화 이후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토론자들은 "종단 차원에서 계도하고 지원해 적극적으로 표준화된 용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제문에 대한 다양한 수정 제안과 함께 외국인 참가자들이 초보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불교사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교정, 감수하고 수준에 맞는 용어가 생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불교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 관음종 묘각사 포교국장 여여스님, 진우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 원장, 홍희연 국제포교사(통역사)가 참석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 자료를 보강해 향후 표준 지침서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불교식 추석차례 시연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명절 차례상 선보여

추석을 앞두고, 불교식 추석차례상 차림과 차례를 시연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오늘(9월5일)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불교식 추석차례 시연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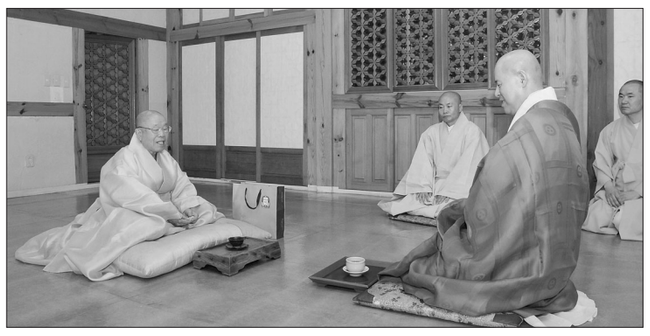
이날 선보인 상차림과 차례의식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3년간 연구한 결과이다. 차례는 거불-청혼-헌다-헌식 순으로 진행되며 20~25분이 소요된다. 음식도 간소하다. 술 대신 차를 올리고, 비싼 차가 아니라 티백을 써도 무방하다. 또 고기나 해물 대신 육법공양을 한다. 또 절은 3배로 하며, 목탁 집전 없이 염불하듯 의식문을 읽으면 된다.

이송자 원장은 "가정제사문화가 춘추전국시대인 요즘 불교식 가정제사의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시연을 계기로 조상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남녀차별의 없이 모든 가족이 제사를 동참할 수 있는 불교식 가정제사법이 대중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교시 받들어 종단 잘 운영하도록 노력"

총무원장 자승스님
법전 종정예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추석을 맞아 법전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을 예방해 하례했다. 지난 1일 해인총림 해인사 퇴설당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정예하의 신년 교시를 받들어 종단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조계사에서 심은 보리수나무에서 열매가 나와 염주를 만들어 스님께 올린다"며 염주를 선물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종단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며, 대장경 천년축전이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종정예경실장 선각스님(해인사 주지)은 "종정예하께서 매일 108배 수행을 계속하시는데 앞으로는 이 염주를 돌리시며 정진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31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청주 보살사를 찾아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을 예방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김찬 문화재청장 임명

독실한 기독교인

신임 문화재청장에 현 김찬 문화재청 차장〈사진〉이 지난 6일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최광식 전 문화재청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에 따른 것으로, 공석이 된 문화재청장에 김찬 문화재청 차장이 기용됐다. 미국 에즈베리신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김찬 문화재청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전통문화정책 추진방향에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58년 경기 광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단장, 관광산업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문화재청 차장을 맡아왔다. 엄태규 기자

신규 포교사 574명 배출

포교사 고시 합격자 발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이 16회 포교사 및 5회 전문포교사 합격자를 발표했다. 포교원은 지난 8월31일 3차 포교원회의를 열고 포교사와 전문포교사 최종 합격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포교사가 된 조계종 신도는 총 574명으로, 부산경남지역이 15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에서 114명, 서울지역 불자들이 73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신행지도와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2명의 포교사를 전문포교사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포교사와 전문포교사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열리는 포교사단 8재계수계실천대법회에서 품수를 받는다. 한편, 포교원은 자격이 정지된 포교사 가운데 720명에 대해 갱신 승인하고, 19명을 복권시켰다. 이들은 미납 단비 및 신도교무금을 납부하고, 포교사단 8재계 정기연수에 참석해야 한다. 어현경 기자

미국동부 교구장 선출 산중총회

9월27일 뉴욕 불광선원

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첫 번째 해외특별교구인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의 초대 교구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소집됐다.

조계종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광스님)는 오는 27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뉴욕 불광선원에서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공고했다. 교구장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법계 대덕 이상이어야 하며, 산중총회 구성원은 종단 등록사찰 또는 포교소의 주지, 구족계를 수지한 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증빙해 교구선관위에 신고한 거주승, 해당 지역 해외파견승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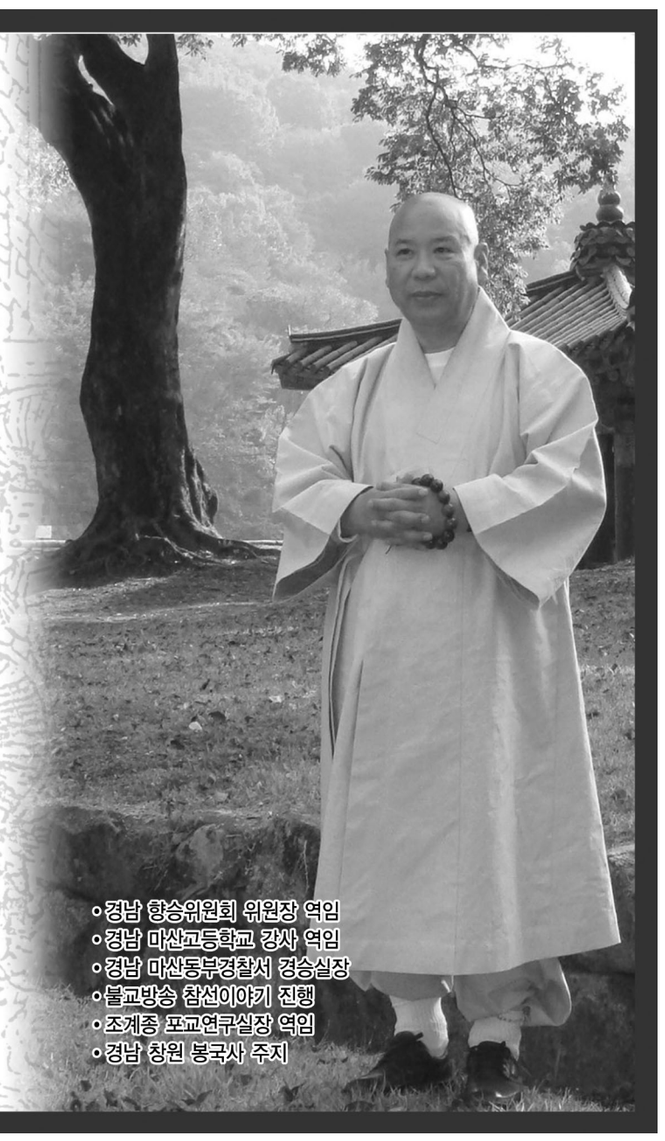
입후보자 신고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거주승 신고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이다. 박인탁 기자

힘과 용기와 희망을 찾아가는
동성스님 법화경 특별강좌

개 강 : 2011년 10월 1일(토) 오후2시30분 강의 : 총28강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3시50분
동참금 : 20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 055-293-3434, 293-3493

법화경은 기원전 100년 무렵 서북인도에서 성립된 경전으로서 대승경전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송 받아온 경전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읽고 감동하여 힘과 용기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아버지 이야기, 집을 나가 떠돌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 갈 길은 먼데 지치고 고단하다고 투덜대는 나그네를 달래서 끝까지 데려가는 길잡이 이야기, 자신이 보배 구슬을 지닌 줄도 모르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떠돌이 이야기들은 모두 어리석은 우리들과 그런 우리들을 교화하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봉국사에서는 법화경을 한번쯤 읽어 보았던 분들이나 처음 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열린 눈과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대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찾아가는 신심을 고양하고자 총28강으로 진행되는 동성스님 법화경 특별강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불기2555(2011)년 9월


•경남 항승위원회 위원장 역임
•경남 마산고등학교 강사 역임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승실장
•불교방송 참선이야기 진행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역임
•경남 창원 봉국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동 79-3번지 · 우편번호 630-806 / 전화 055-293-3434, 293-3493